

Blessed to be a Blessing

Evangelia University

Anaheim, California, USA

2021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개강 특강

2012 년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 월 17 일 오후 4 시(태평양시간)에 줌으로 진행되었다. 교무처장 강순혜 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평가처장 황진기 박사의 기도, 총장 김성수 박사의 설교 메시지가 있었다. 김총장은 로마서 1 장 1 절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신입생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에반겔리아 대학교는 “교회와 세계의 사역을 위해 지구촌의 하나님 자녀들을 준비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 선언 낭독과 함께 사회자는 교육 목적과 교육 결과와 학교 역사를 소개하고, 본교의 교육 철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강조하는 코람데오(Coram Deo) 정신임을 강조했다. 초대 총장 고 이근삼 박사의 헌신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통해 시작된 본 대학교는 2 대 총장 고 신현국 박사의 노고에 이어, 3 대 총장 김성수 박사에 이르러 모든 분야에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영중 기획처장은 본교의 교직원들을 소개했다. 열여덟명의 전임교수진과 열여덟명의 강사진이 다양한 분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열한명의 원거리 교육 지역 디렉터들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 등 세계 각지에서 원거리교육에 협력하고 있다.

이어 입학처장 황현조 박사의 진행으로 신입생 소개와 인사가있었다. 학사과정에는 영어부에 우간다 17 명, 차드 1 명, 남아공화국 2 명, 필리핀 3 명, 페루 1 명 등 24 명의 신입생들이 지원했고, 한국어 과정에 2 명의 신입생이 공부를 시작한다. 목회학 석사(M. Div.) 영어 과정에는 인도 1 명, 필리핀 1 명, 태국-미얀마 2 명, 한국어 과정에는 5 명의 신입생이 공부하게 되었다. 문학석사 종교학 (MAR) 영어과정에 2 명, 한국어 과정 1 명, 교육학박사과정 2 명, 목회학 박사 과정에 1 명 등 총 41 명의 신입생이 등록했다.

학교 프로그램 소개, 동영상을 통한 본교 건물과 도서관 등의 투어, 그리고 이찰리 교학과장의 입학절차 안내를 마치고, 원차회교수의 기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가을학기 부터 선교학 석사(MAICS-Missiology)와 선교학 박사 (DICS-Missiology) 과정이 신설된다. 모든 과정은 TRACS 의 정식 학력인증을 받았으며, 미고등교육협회 (CHEA)에 등록되어 있다. 가을 학기 모든 학사와 석사과정의 수업은 8 월 23 일 주간에 시작되며 박사과정과 선교학석사 과정은 2 주간 후인 9 월 6 일 주간에 시작된다. 박사과정을 비롯해 모든 학위 과정은 온라인을 통한 원거리교육으로 마칠 수 있다. 본교의 원거리교육은 교육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서 소통이 이루어져 온라인의 편리함, 현장교육의 활동성을 모두 살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교는 캘리포니아사립고등교육국 (BPPE) 인가를 받았으며, 미연방이 인정한 신학교육 인증기관인 TRACS (The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의 정회원이고, 신학대학원 학력인준 기관인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준회원이다. 올해는 ATS 정회원 인준을 위해 학교 자체 평가와 보고서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재미 고신 총회 소속 신학교로서, 한국 고신의 순교적 신앙과 철저한 성경중심의 개혁신학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회와 선교 현장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 가을학기 개강 특강 시리즈: 예수님의 비유



Dr. Ernest van 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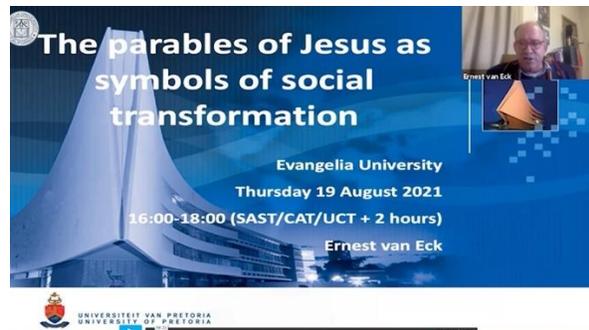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Related Literature
University of Pretoria, South Africa

가을 학기 개강 특강이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대학교 (University of Pretoria)의 신약교수이신 어네스트 반 에크(Dr. Ernest van Eck) 박사의 “갈릴리 상황에 비취본 예수님의 비유들” (Is there a parable in the room? – The parables of Jesus the Galilean)”이란 주제로 3 주간 진행된다.

“사회변혁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비유” (The Parables of Jesus as Symbols of Social Transformation)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강좌에서, 에크 박사는 비유해석에 있어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에크 박사는 신구약 성경과 더불어 1세기 팔레스틴의 상황을 알려주는 다양한 문서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 시대 상황에서 비유를 접근하고 이해하면서 오늘날의 강단에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두번째 강좌는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 “밤중에 찾아 온 친구”, “므나의 비유”를 예로 비유에 접근하는 법을, 마지막 강좌에서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잔치 비유’, ‘겨자씨 비유’, ‘잃은 양의 비유’를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강좌는 줌으로 진행되며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강의동영상, 한국어로 번역된 강의 파워포인트 자료는 에반겔리아 대학교 홈페이지 (www.evangelia.edu)에서 볼 수 있다.



특별강좌 주제와 시간

IS THERE A PARABLE IN THE ROOM? -THE PARABLES OF JESUS THE GALILEAN

Date & Time: August 19, 26, September 2 (Thurs), 7 AM (Pacific Time)

4 PM (Johannesburg, South Africa), 2 PM (Ghana, Africa)

11PM (Korea), 10 PM (Philippines), 9PM (Thailand)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85652063881?pwd=Mk4zbzVVeEp2VXU2SkNBRDU2My8xdz09>

Meeting ID: 856 5206 3881 Passcode: 502562

August 19: A mosaic of interpretations: How to interpret a parable

Allegories, eschatological symbols, and symbols of social transformation and justice: How do we read the parables?

August 26: Reading the parables: In the kingdom all has enough

The Sower (Mark 4:3b-8): In the kingdom everybody can have enough

The Friend at Midnight (Luke 11:5-8): A shameless and exploiting neighbor

The Minas (Luke 19:12b-24, 27): Protesting for the sake of the kingdom

September 2: Reading the parables: The kingdom is inclusive

The Feast (Luke 14:16b-23): A kingdom patron

The Mustard Seed (Luke 13:18-19): A wild and chaotic kingdom taking over

The Lost Sheep (Luke 15:4-6): A surprising shepherd